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9월 1일(주일) 제1260호



“CGNTV는 인도네시아 복음화의 통로”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개국 5주년 감사예배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 주제로 세미나 개최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개국 5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28일(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이용경 장로(CGNTV 대표), 밤방 위자야 목사(GKPB Fajar Pengharapan Bandung 담임), 로니 만당 목사(복음주의교회협의회 총회장), 김교성 목사(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담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개국 5주년 감사예배는 워싱턴팀 ‘노아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교회협의회’의 특순, 헨리넷 목사의 축사, 밤방 위자야 목사의 설교, 이재훈 담임목사의 감사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앞으로도 CGNTV 인도네시아 지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인도네시아에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CGNTV 인도네시아 지사는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바탕으로 현지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라이프 채널 탑 30에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채널이다.

헨리넷 총회장(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은 “CGNTV 인도네시아 지사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했고, 밤방 위자야 목사는 “CGNTV는 젊은 세대를 섬기는 데 아주 탁월한 도구”라고 말했다.

지난 29일에는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개국 5주년 세미나가 열렸다.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넬슨 제닝스 박사, 이용규 선교사 등이 강의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화)에는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에서 CGNTV 글로벌 운영위원회 비전모임이 있었다.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 고마르

굴툼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선교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선교 현황, CGNTV 일본, 대만, 미주지사, CCF(Cristian Ceo Forum) 소개 등을 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오늘, 도곡교육관 주일 3부 첫 예배

도곡교육관 주일 3부 첫 예배를 오늘(1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이상준 목사가 사회를 본다. 도곡교육관 3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50분 숙명여대학교강당에서 드린다.

당회 안내

일시: 9월 7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안건: 평양남회 청원 건
목사안수 및 부목사 신규청원
장로고시 청원

제직회

일시: 9월 8일(주일) 2부 예배 후
대상: 모든 제직

9월 4일 대전 온누리 창립 16주년

대전 온누리교회가 9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창립 16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창립 16주년 기념예배는 개강예배와 함께 진행된다. 카리스 중창단의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창립했다.

‘Harvest 2019’ 11일 앞으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온누리M미션이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한가위를 보내는 아주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다. ‘Harvest 2019’가 ‘Level up’을 주제로 9월 12(목)부터 14일(토)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막 오른다. Harvest 2019에는 러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

팔, 필리핀, 미얀마, 몽골,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 5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Harvest 2019에서는 세 번의 예배, 간증 나눔, 문화 공연, 레크리에이션, 국가별 모임, 성찬 등이 진행된다. 은 목사(안산M센터 베트남어예배 담당), 레비 아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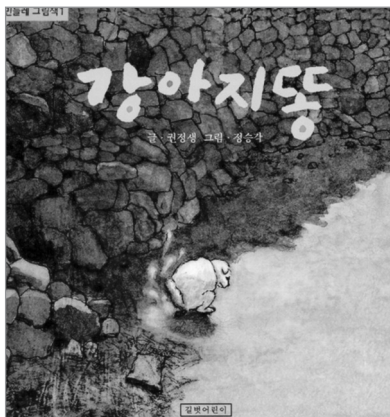
목사(필리핀 그린힐크리스천교회 담임),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가 강의한다. 온누리M미션은 행사에서 사용할 빵, 고기, 커피 등 750인분, 추석선물, 솜사탕 기계 등을 후원 받고 있다.

문의: 물품후원 010-4732-4371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책 읽어주는 목사

존재의 소중함



〈강아지 똥〉

권경생 저 | 길벗어린이 | 12,000원

30개월 쌍둥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두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모래놀이를 할 때다. 아이들은 모래에서 놀 때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깔깔 웃으며 즐거워한다. 부모인 내가 생각할 때는 모래와 흙은 옷과 신발을 더럽히고, 먼지를 일으키며,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두 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좋은 장

난감보다 모래가 훨씬 좋은 장난감이자 선물이다. 나에게도 크게 소중해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을 보며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지음 받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음을 배우게 된다.

아동문학가 권경생 선생의 대표작인 〈강아지 똥〉은 동화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거리를 안겨준다.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 ‘강아지 똥’도 알고 보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러주며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흰둥이 강아지가 담장 밑에 누고 간 똥이다. 강아지 똥은 참새와 흙덩이, 그리고 닭과 병아리에게 더럽다는 이유로 외면당한다. 모두에게 외면당하며 따돌림 당하던 강아지 똥은 자신이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슬퍼하면서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한다. 봄비가 내린 후 강아지 똥 옆에 민들레 씨가 돋아난다. 민들레로부터 거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강아지 똥은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민들레 씨를 힘껏 껴안는다. 자신의 몸을 쪼개 민들레 뿌리

로 스며들어 거름이 된다. 결국 민들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강아지 똥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더럽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책의 한 부분에 강아지 똥과 흙덩이의 대화가 나온다.

강아지 똥: “나 같은 더러운 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니?”

흙덩이: “아니야,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저자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스스로 아무 쓸모없다 여기는 강아지 똥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알려준 것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율림이 되고 희망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의미가 있다. 스스로를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던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워낸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한 주변을 바라볼 때도 나의 평가나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종호 목사
(양재 차세대)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답: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남녀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신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을 그 자체로 죄악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다. 성경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창 1:27~28).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인류 최초의 커플 매니저,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창 2:21~25). 결혼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남녀의 성은 바로 이런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한다. 남녀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오직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세워지는 가장 친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이다.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창 2:24)라고 하며 부부의 관계를 ‘한 몸 된 관계’라고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며 세상에 이런 관계는 없다. 남녀의 성관계는 이러한 부부의 한 몸 됨을 표현하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하나 됨의 언약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나의 배우자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 설사 결혼을 약속한 관계라고 하여도 역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부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녀의 성관계는 생명 탄생의 시작점이며 생명의 탄생을 축복받는 관계는 오직 부부 관계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다(창 1:27~28).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성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이미 생명의 탄생을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경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낳고 낳고’의 역사, 곧

생명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져 감을 보여 준다(마 1:1~17). 생명의 탄생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믿음이 계승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간다. 그러므로 생명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탄생의 시작이 되는 남녀의 성관계에 기쁨을 주신 것이다. 물론 모든 성관계가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탄생은 남녀의 성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관계가 가능한 관계는 생명의 탄생이 축복받을 수 있는 관계, 곧 결혼한 부부의 관계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이 결혼한 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죄악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16,18).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음행이 되고,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자신을 해하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부부관계 이외의 관계에서는 음행이라는 죄가 된다.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할 몸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악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고전 6:19~20). 남녀의 성관계는 결코 육체적 쾌락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세울 때,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혹시나 이미 그 기준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고후 5:17).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 주실 것이다.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본부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신앙생활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가장 쉽게 흘러버리는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왜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쉽게 흘러버리는 것일까요? 첫째, 회개가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죄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죄가 심각하지 않기에 회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알고 지은 죄를 모두 회개했다 할지라도,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회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회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은 마음에 뉘우침이 있고 양심에 가책이 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음이 괴로워 자살했습니다. 사울도 마음에 늘 짐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악한 아합 왕도 마음이 괴로워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때 남아 있었던 양심의 자연적 기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과 참된 회개를 통해 얻어야 하는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셋째, 회개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지나신 통과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평생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나는 이미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에 이제 회개라는 단어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쉽게 흘러버리는 이유

참된 회개(1) 돌이키고 돌이키라

에스겔 33:11

“돌이키고 돌이키라.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로마 교황청을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그 첫 번째 문항이 바로 회개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마 4:17)로 말씀하신 의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 전 생애를 걸쳐 항상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반박할 때 교황청의 부패한 것을 95개조 항목에 나열해야 하는데, 회개를 첫 번째 항목으로 내걸었을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94개조 항목들이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한 번 하고 지나가는 통과례로 여기고, 그 이후부터는 회개와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는 잘못된 회개관과 의식 때문에 중세 교회가 타락했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은 이미 회개했다고 자신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너무나 먼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둘째, 회개라는 말이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목소리와 성령의 감동을 외면한 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더 이상 회개할 능력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개할 마음, 회개의 부르심을 완전히 차단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역사하는 ‘회심’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 4:17).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준비되었고, 그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아픔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초청하십니다. 조건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의 집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나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개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 됨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음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이렇 수도 있고, 저렇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사상의 체계가 이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은 이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진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반드시 믿는 영혼입니다. 믿는 영혼은 반드시 회개하는 영혼입니다. 만일 내 안에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뒷면에 내가 죄로부터 떠나는 회개의 체험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참된 회개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

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는 공존하는 동시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역사할 때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과 말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회개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회개의 시작은 스스로의 결심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들려질 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각 심령 속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체험될 때 가장 중요한 반응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행해야 할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 33:11).

(13면에 계속)

기획 교회, 세대를 말하다

세대를 알면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

베이비붐부터 386세대, X세대, 밀레니얼(Y)세대, Z세대까지
Z세대는 교회의 미래 ... 그들을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해야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동서고금(東西古今), 시대를 막론하고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어른들 눈에 비친 신세대는 버릇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다. 베이비붐세대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개성 넘치는 X세대를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X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다. X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인 Z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대별 특징을 살펴 보면서 교회의 미래인 Z세대를 이해하고, 교회가 그들을 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생님은 월급 왜 받으세요?”

“나머지 애들은 들리리인가요? 아무리 학교가 임시공장이 되버렸지만, 눈앞에서 내놓고 반직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서요.”

올 초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SKY 캐슬’에서 고등학생 혜나(김보라 분)가 학교 선생님한테 한 뼉 때리는 말이다. 혜나는 어른들이나 선생님에게 껍떡(팩트폭격)을 날리며 할 말은 다하는 당찬 학생이다. 어른들 말에 곧이곧대로 수긍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업신여기는 어른들을 쥐락펴락 할 정도로 당당하다. 그런 혜나가 바로 Z세대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걸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2019년 기준으로 10대 청소년에서 만 24세 이하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들이 Z세대이다.

Z세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선 세대들을 살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세대의 변천사를 알면 그 시대의 특징과 명암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대의 변천사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미국의 각 세대를 베이비붐세대(1946~1964년), X세대(1965~1980년),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 Z세대(1997~)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대 구분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한국은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386세대(1960~1969년), X세대(1970~1980년),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 Z세대(1997년~)로 나누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전쟁 이후 태어난 사람들을 뜻한다. 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출생한 이들을 가리키고,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는 5.16 군사정변과 새마을운동을 겪은 세대로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주역이다. 고도경제성장뿐만 아니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두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부모 봉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들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첫 세대이다.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한 첫 세대이기도 하다.



도 하다. 그야말로 비운의 세대이다.

‘386세대’는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다. 1990년대 당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이라 하여 ‘386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이다. 책 〈386 세대유감〉에서는 “20대에 정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향해 싸우다, 30대에 고임금과 부동산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중산층에 진입하고, 40대에 경제위기 파고에도 승승장구해 사회중추세력이 되고, 50대에 우리 모두의 머리 꼭대기에 선 그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X세대’는 1970년대에 태어난 이들로, 신세대의 시초이다. ‘정의할 수 없음’을 뜻하는 X 세대에 대해 제일기획은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였으며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전 세대들이 이뤄놓은 산업화의 결실을 풍요롭게 누린 첫 세대이다. 워크맨(카세트 플레이어)과 삐삐(무선호출기)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PC활용에 익숙해서 PC통신으로 소통했으며, 1991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기 시작한 세대이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대중문화의 부흥을 이끈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기성세대 풍문가들로부터 후평을 받았던 ‘서태지와 아이들’에게 열광했을 정도로 남들과 차별화되는 개성과 개인주의를 중시했다. 첫 수

능세대로 수능을 한 해에 두 번 본 유일한 세대이기도 하다.

‘밀레니얼세대’는 1981~1996년에 태어난 세대로 베이비붐세대의 자식 세대이다. X세대 다음 세대란 이유로 ‘Y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밀레니엄(2000년) 시대에 대학에 입학했다.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에 성인이 된 이들이다. 밀레니얼세대는 유복하게 자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힘들어하는 세대이다. 이들에게 대학입시가 전쟁이었다면 취업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다른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88만원 세대’이기도 하다. 결국 연애와 결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가 되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빠 빠지게 일해도 내 집 마련은 커녕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율로(한번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뜻),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란 뜻), 가심비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이다.

‘Z세대’는 1997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X세대의 자녀들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랐다.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대면관계는 어색하고, 개인주의가 심한 세대이다. Z세대는 유튜브와 함께 자라 ‘유튜브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예인보다 인플루언서(SNS에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유명 일반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같은 현상은 10대들의 희망직업 선호도마저 변화시켰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초·중·고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교사, 의사 등 전통적인 희망직업 순위가 밀려나고 ‘유튜버’라는 직업이 5위에 올랐다.

Z세대도 밀레니얼세대처럼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세대인 X세대가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안정과 실용성을 추구한다. 통계청(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Z세대는 6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성인은 336만 명이다.

그래야 교회의 밝은 미래 꿈꿀 수 있다

교회는 Z세대를 더욱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왜냐하면 Z세대가 전형적인 탈기독교(Post-Christian)세대이기 때문이다. 미국 바나 리서치가 미국 전역에서 13~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두 번(2016년, 1490명/2017년, 507명 대상)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Z세대 무신론자(13%)는 무신론자 성인 인구(6%)보다 두 배 더 많으며, 이들에게 ‘무신론자’라는 용어는 더 이상 피하거나 꺼리는 금지어가 아니었다. 고작 20%만이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들에게 진리는 철저하게 상대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교회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Z세대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진리가 하나라고 믿지 않는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나고 자랐다. 이 시대 교회들이 Z세대와 차이를 좁히고, Z세대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군 장병들, 사직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는 Z세대의 행동을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Z세대를 알고 이해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교회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교회가 Z세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품는지가 곧 교회의 밝은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Z세대와 교회 그리고 미래



최성민 목사
(대학부 본부장)

젊은이들을 X세대라고 지칭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보통 X세대를 신세대, 새로운 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X세대는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흘러 그 X세대가 40대가 되었다.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Y(밀레니얼)세대라고 한다. 어쩌면 지금 문화의 중심에 있는 세대가 Y세대일 것이다. Y세대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인데, 그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가 바로 한창 유행했던 ‘YOLO(올로)’이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세대가 바로 Y세대이다. Y세대를 지나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말한다. Z세대의 대표적 키워드는 ‘디지털’이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경험했고,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세대이다. 그래서 Z세대의 재미난 별명이 있는데 바로 ‘디지털 원주민’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성세대의 시선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조금 어리석어 보이기기도 하고, 버릇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저런 녀석들에게 내일을 맡길 수 있을까?’ 답답함이 있다. 과거 기성세대들이 우려했던 바로 그 X세대와 Y세대가 오늘날 멋지게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걱정과 답답함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Z세대의 세 가지 특징 ‘간단함’, ‘재미’, ‘정직함’

Z세대의 성격에 대한 키워드를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단함’이다. Z세대는 길고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길어지거나 복잡한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들은 그 상황을 지루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언어습관이다. Z세대는 축약형 은어인 줄임말을 만드는 것에 천재적이다. 물론 과거에도 줄임말이 있었다. 그러나 Z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줄임말은 단순히 단어를 넘어 문장까지 그 영역을 넓힌다.

예를 들면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할말하얏’(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ㄹㅇㅇㅇㅇ’(미친다 미쳤어) 등이다. 이와 같은 언어에서 알 수 있듯 Z세대는 최대한 간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래서 긴 텍스트 보다는 이모티콘이나 움짤(움직이는 이미지)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Z세대는 글쓰기에 있어서도 서론, 본론, 결론 형식보다는 짧게 요점만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스압주의’(스크롤 압박 주의; 너무 길어서 마우스로 스크롤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기를 많이 해야 하는 지루한 글이니 조심하라는 뜻)이다. 길게 쓰기보다는 세 줄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달라는 의미이다. 그만큼 Z세대들은 복잡하게 사고하기보다는 심플하게 정보를 접하고 사고하기를 원한다.

Z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재미’이다. 그들은 쓸데없는 진지함을 멀리하고, 모든 일에서 재미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 뭔가 질서정연하고 클래식한 문화보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가 올바르지 못한 권력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눈감지 않고 분노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다. 뉴스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은 분노하고 댓글로 감정을 이야기한다. 신세대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솔직함’이다. Z세대에게 솔직함은 자신의 솔직함뿐 아니라 타인의 솔직함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과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것을 눈감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90년대생들이 한번쯤 꿈꿔보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다. 그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꿈꾸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정직한 사회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수많은 불공평함을 보게 되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노력해서 인정받

“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한 분이셨고, 심플한 분이셨다.
재미있는 분이셨고, 누구보다 고결하고 정직한 분이셨다.
가장 예수님 닮은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Z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나아갈 미래라고 생각한다.**

”

속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것을 즐겨한다. 이전에는 본질적인 것을 돋보이기 위해 재미가 결여됐다면, 이제는 재미 그 자체가 본질이 될 정도로 Z세대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Z세대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면서 새로운 능력이 생겨났는데 바로 ‘드립력’이다. 드립은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발언’이라는 의미로, 드립력은 특정 상황 속에서 재미있게 남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Z세대들은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중요한 능력으로 여긴다.

Z세대의 세 번째 특징은 놀라게도 ‘정직함’이다. 이전부터 정직함은 인간의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Z세대에게 보이는 정직함은 이전의 정직함과 차이가 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불어 이제는 기존에 숨겨져 있던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그림자에 대한 Z세대의 반응은 완전무결한 정직함이다. 이들은 사회

을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Z세대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 모른다.

심플하고, 재미있으며, 정직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Z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Z세대들 역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에 교회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Z세대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간단함과 재미, 정직함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Z세대들에게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그 의도와는 다르게 간단하지 않고, 재미가 없으며, 가식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기 쉽다.

Z세대는 보다 심플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교회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보다 많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기를 바라며,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과 만남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비본질적인가? 그렇지 않다. Z세대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간단함과 재미, 정직함을 찾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분명 아니다.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더욱 빛나기를 원한다. 분명 어려운 숙제를 교회에 제시하고 있다.

Z세대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조금 더 심플하고, 재미있으며, 정직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도 그들의 요구에 발맞춰 변화되어 가고 있다. 다만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Z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Z세대가 원하는 것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다. 그 본질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 변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인 ‘예수바보행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한 분이셨다. 예수님은 심플한 분이셨다. 그리고 재미있는 분이셨고, 누구보다 고결하고 정직한 분이셨다.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Z세대를 비롯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닐까? 가장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는 것이 어쩌면 Z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나아갈 미래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대학생들과 Z세대에게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Z세대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했다. 기대했던 이야기들이 오갔다. 현실적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는 90년대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Z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그런 요구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전반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 그렇다고 정의내리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폭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X세대부터 부각되어 왔던 신세대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사실 시대별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특징을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양한 그룹을 만들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Z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교회는 시대에 흔들리는 곳이 아니다. 또 교회는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빛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온누리교회가 모두의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중보기도의 바람 불게하소서”

풍성하고, 뜻 깊은 온누리교회 중보기도모임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렘 29:12).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그 기도는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다. 온누리교회에도 예레미야처럼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임들이 참 많다. 북한, 청년, 다음 세대, 선교지와 선교사 등 그 내용도 풍성하고 뜻 깊다. 그 귀한 중보기도모임에서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중보기도모임'과 '살롬기도회'

온누리교회에는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 바로 '북한중보기도모임'과 '살롬기도회'다. 북한중보기도모임은 1996년 만들어졌다. 초생(初生)될 당시부터 많은 성도들이 북한중보기도모임에 참석했는데 유독 청년들이 많았다. 그 청년들이 2000년 여호수아공동체에 '북한선교부'를 만들었고, 2003년에 세워진 탈북자들을 위한 예배공동체인 '하나공동체'의 초석이 되었다. 지금은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북한 관련 된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 기도모임이 지금의 북한중보기도모임이 되었다. 북한중보기도모임은 명절과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쉬지 않고 이어진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인원에 상관없이 늘 찬양, 말씀, 기도가 충만하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2호에서 열린다.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살롬기도회는 2016년도 통일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살롬기도회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통일 이후 북한의 복음화와 재건에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준비되기를 기도한다.

살롬기도회에서는 황의서 장로(통일위원회)가 성경말씀을 나누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린다. 북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기도와 말씀으로 통일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들 대청, 차세대, 군입대 자녀 위한 기도모임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성인 암브로시우스의 말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을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지칠 줄 몰랐다. 어머니의 기도는 망나니 어거스틴을 성인으로 만들었다. 온누리교회에도 모니카처럼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다. 바로 '대학청년들을 위한 어머니중보기도



북한중보기도모임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모임(이하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모임',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이다.

대청어머니기도모임은 2009년 1월 시작됐다. 당시 대학청년공동체와 어머니들은 진학,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중보기도모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을 시작했다. 대청어머니기도모임에서는 매월 첫째 주 11개 대학청년공동체로부터 기도제목을 받고 있다. 아웃리치,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 홀리스타(대학청년부 새벽기도모임), 예배, 대학청년부 교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등 기도제목이 다양하다. 대학청년부 목회자들은 매주 대청어머니기도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청어머니기도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경찬홀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B102호에서 열린다.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모임은 1996년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가 뿌리다. 당시 부모들이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교회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해 수능 시험이 끝나고 그 기도모임이 계속 이어졌다. 자녀들의 입시보다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기도의 대상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되었다. 매주 함께 모여 다음 세대, 자녀의 신앙과 학교생활을 위해 부르짖고

있다. 9월 5일부터 2학기가 개강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누리홀과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린다.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은 2004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강찬석 장로(서대문공동체)가 열악한 군교회를 방문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강 장로는 장병들을 위한 기도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장병들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에서는 군 선교팀, 군내 동성애 문제, 장병들의 신앙, 군 수뇌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자녀가 전역할 때까지 중보기도를 한다.

김준용 장로(군선교 담당)는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많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면서 “참석이 어려운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에 알려주면 함께 기도해준다”고 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열린다.

작지만 강한 기도의 용사들 '아프가니스탄중보기도모임'

작지만 그 어떤 곳보다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모인 중보기도모임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모임이다. 매주 5~7명 정도 모이는 작은 기도모임이지만 기도의 열정만큼은 남다르다. 무려 3시간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하

고 기도한다.

아프가니스탄중보기도모임은 2002년 하용조 목사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일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처참한 상황을 목격한 하용조 목사가 “온누리교회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그렇다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중보기도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5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202호에서 열린다.

이 외에도 온누리교회에는 수많은 중보기도모임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여성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선교사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등 그 내용도 풍성하고 뜻 깊다. 중보기도모임에서는 남녀노소, 직분과 관계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번 기사에 소개된 중보기도모임 외에 또 다른 주제의 중보기도모임이 궁금하거나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는 온누리신문 게시판(14~15면)을 참고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누리교회에서는 중보기도의 바람이 쉬지 않고 불고 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모임에 참석해서 더 큰 기도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중보기도모임

- 북한중보기도모임 010-8591-8236
- 살롬기도회 010-8634-9030
-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서빙고 010-8000-4792
양재 010-3285-1726

-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모임
서빙고 02-3215-3523
양재 02-570-7436
- 군입대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010-3787-1958
- 아프가니스탄중보기도모임
010-3212-2664

떠남으로 열매 맺는 '온누리 선교 영성' 2

서울에서 온 할머니 할아버지,

다문화가정에 천국소망과 기쁨 선물하다

강원도 속초로 떠난 김성환, 김명희 집사 부부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7년 된 성도는 떠나라.”

고 하용조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바탕으로 선교 비전을 제시하면서 늘 ‘떠날 것’을 강조했다. 그 말씀을 따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국내외 아웃리치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를 떠나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천국소망과 기쁨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김성환, 김명희 집사 부부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김성환, 김명희 집사 부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누리스랑부와 가정사역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지금은 강원도 속초에서 다문화사역을 하고 있다. 김 집사 부부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선교정신이 다문화사역의 원동력”이라고 고백했다. 그 선교정신으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사도 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온누리교회에 처음 간 게 2011년이었어요.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어요. 온누리교회는 그때도 지금처럼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그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어요.”

선교사를 준비하던 김성환, 김명희 집사 부부에게 온누리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온누리교회는 이들 부부에게 선교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뜨거운 선교 열정과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심어줬다. ‘한국어선교학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일대일제자양육’, ‘내적치유학교’ 등 김 집사 부부가 온누리교회에서 받은 훈련은 매우 다양했다. 이 모든 것이 다문화가정을 세우고 섬기는데 더없이 훌륭한 자원이 되었다.

“아직은 사역 시작단계이고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문화가정을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귀한 열매들도 조금씩 맺히고 있고요. 모두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선교 노하우 덕분이에요.”

김 집사 부부가 처음부터 다문화사역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이 유도 해외선교를 위해서였다. 서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명희 집사는 자신의 달란트로 열악한 선교지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외의 열악한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건축설계에 도움을 줬어요. 앞으로도 해외를 돌면서 이 일에 전적으로 헌



강원도 속초에서 다문화가정을 섬기고 있는 김성환, 김명희 집사 부부.

신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문화사역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의료분야 기자로 평생을 살아온 김성환 집사도 열악한 선교지를 돌면서 의료사역에 헌신했다. 김 집사 부부는 그 동안 아프리카 마사이부족과 필리핀의 바자오족(수상민족), 태국의 카렌족의 선교사들과 함께 의료와 교회·학교건축 분야에서 봉사했다. 부부의 섬김으로 선교지에 귀한 열매도 많이 맺혔다. 무엇보다 어려운 선교지를 돕는 일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김 집사 부부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에게 수많은 다문화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보게 하셨다.

“속초에 오기 전에 수많은 다문화가정들을 접했어요. 그들 중에는 문화와 언어 차이로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를 무시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외도문제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문화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멀리 해외로 갈게 아니라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가정부터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문화가정 돕는 선교센터 세운다

김성환, 김명희 집사 부부는 지난 5월 온누리교회를 떠나 강원도 속초에서 다문화사역을 시작했다. 속초에는 수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있다. 그녀들 역시 낯선 타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집사 부부가 처음 섬긴 다문화가정은 남편 황경근 형제와 베트남 아내 보티김 자매이다. 이 가정도 여느 다문화가정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언어와 문화 차이가 컸다. 말도 잘 통하지 않을뿐더러 문화가 다르다 보니 부부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황경근 형제는 아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런데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한국생활 적응은 쉽지 않았다.

“아내가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니까 부모님도 보고 싶고, 고향이 많이 그리웠을 거예요. 특히 친정 부모님 같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서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성환, 김명희 집사님께서 아내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두 집사님께서 아내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한국생활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씩 변화되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한

국생활도 곧 잘 적응하더라고요.”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앙이 없었던 황경근 형제도 차츰 교회에 흥미가 생겼다.

“원래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잘 챙겨주는 두 집사님 내외분을 보면서 교회에 관심 갖게 됐어요. 두 분은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아내를 도와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김성환, 김명희 집사 부부는 황경근, 보티김 부부에게 미니 결혼식도 열어주고, 자녀에게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도 해줬다. 황경근 형제의 11살짜리 자녀 황연아 어린이는 김명희 집사가 해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

“서울 할머니(김명희 집사)가 가르쳐주는 성경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할머니와 매주 성경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도 했어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강원도 CBS에서 주최하는 성경암송대회도 나갔어요.”

김성환, 김명희 집사 부부는 황경근, 보티김 부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문화가정들도 섬기고 있다. 식사교제, 신앙상담 등을 해주면서 그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 집사 부부는 다문화가정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장로회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기독교상담 공부도 시작했다. 또한 강원도 속초에서 가까운 강원도 양양에 펜션을 임대해 다문화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문화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해요. 이 펜션은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돕는 선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가정사역, 내적치유, 관계기술, 한국요리, 일대일제자양육, 한국어교실 등 이곳에서 다문화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김성환, 김명희 집사 부부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기도와 헌신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다문화가정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남D공동체
미얀마

복음의 빛진 자로서

강남D공동체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미얀마 인레호수에 다녀왔다. 그곳은 해발 880m 고원지대이다. 약 10만 명의 인파족(호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 살고 있다. 그들은 주로 호수 위에 집을 짓고, 고기잡이와 수경재배를 하면서 살아간다. 인파족은 1996년 온누리교회가 미전도종족으로 입양한 민족이기도 하다. 대부분 불교를 믿고 기독교에 매우 배타적이다.

우리 아웃리치팀은 미얀마 인레호수에 도착하자마자 야마웅 목사님이 세운 예봉지교회를 방문했다. 야마웅 목사님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약 4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 이후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우리는 야마웅 목사님과 함께 모든 인파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땅 밟기를 했다. 그리고 2일 동안 치과진료, 미용사역, 미얀마어 찬양, 현지인을 위한 중보기도 등을 했다. 현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작은 구슬로 복음팔찌도 만들었다.

야마웅 목사님 외에도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얀마 전략팀 소속 세 분의 선교사님도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다. 우리 팀은 선교사님들이 추진 중인 태양광 지붕, 시범농원, 인공 양어장 등을 둘러봤다. 현지인들의 경제자립을 돕는 사역과 복음전도가 동시에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D공동체가 미얀마 인파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아웃리치 사흘째에는 카누처럼 생긴 작은 배를 타고 인레호수를 둘러보았다. 호수 중앙에 있는 미얀마 3대 성지중 하나인 ‘파웅도 우 파고다’에도 들렀다. 젊은 두 커플이 연꽃을 흔들며 금박으로 입혀진 불상에 절하며 소원을 빌고 있었다. 순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거짓우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

다. 미얀마 옛 수도였던 양곤시에도 방문했다. 그곳에는 제법 규모가 큰 식당이 있다. 종업원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해 소통이 어려웠다. 우리는 한 여직원이 한국 가요와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용기 내어 즉흥적으로 미얀마 찬양곡인 ‘예수싸웅다(예수 때문에)’ 가사를 그 직원에게 보여주며 찬양을 불렀다. 그때 주위에 있었던 직원들이 찬양을 따라 불렀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예수님이

이 순간을 기뻐할 생각을 하니 지친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 같았다.

이번 미얀마 아웃리치를 통해 얻게 된 은혜를 나누고 싶다. 첫째,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의 하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것처럼 우리는 이번 아웃리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둘째,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세분 선교사님 가정의 섬김, 열정, 희생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다. 셋째, 함께 가지 못한 강남D공동체 식구들의 기도와 격려 메시지, 정성 어린 재정 후원으로 아웃리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해외 아웃리치는 누군가 대신 가겠지’ 또는 ‘국내도 갈 곳이 많은데 굳이 해외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빛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해야 한다. 우리는 비록 선교사님들처럼 현장에서 사역하지는 못하지만 미얀마 소식이나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박대수 집사
(강남D공동체)

허브공동체
네팔

겸손과 사랑만이...

허브공동체는 지난 7월 네팔로 여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하나님께서는 아웃리치 준비 기간 동안 나에게 뜨거운 열정과 회복, 자신감을 부여주셨다. 나는 그 은혜에 힘입어 기도로 아웃리치를 열심히 준비했다. 내가 행하는 작은 섬김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엾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막상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보니 내 중심에는 교만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봉사했다. 하나님께서는 아웃리치 기간 내 내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

아웃리치 첫날부터 고된 여정이 시작됐다. 인천공항에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차로 17시간 정도 이동해서 처무니아교회에 도착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처무니아교회에는 화려한 밴드, 커다란 교회 건물, 잘 짜인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그들이 드러내는 예배와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화려한 성전과 좋은 환경에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이 비쳤다. ‘나는 하



허브공동체는 네팔 처무니아교회에서 네팔 현지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나님이랑 가까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어’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웠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겠다고 결단했다.

우리 아웃리치팀은 50℃가 넘는 고온과 말도 안 되는 습도로 사역 내내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웃리치를 이어갈 수 없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살펴보니 한국에서만 네팔에서도 기도로 아웃리치를 잘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열악한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등한시 했다. ‘선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이런 고민이 지속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또 한 번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다시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사역에 더욱 겸손히 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전도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전도사님께서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면서 “만약 돌아갈 곳이 없다면 이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게 했다. 봉사도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겸손과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겸손과 사랑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일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신민욱 형제
(허브공동체)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 인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가 맡겨졌다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이 1다락방 1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지체들과 지난 7월 21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과 해수욕장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웃리치를 기대하며 준비하던 중에 필리핀 북동부에서 발생한 태풍이 타이완 동쪽을 지나 한반도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태풍이 오는 바닷가에서 모임이 가능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태풍은 아웃리치 하루 전인 20일 한반도를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빠져 나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차질 없이 아웃리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당일 다락방에서는 조를 편성해서 일부는 먼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준비했고, 일부는 김포M센터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며 점심식사를 하고 을왕리로 이동했다. 우리 부부는 다락방장님 부부와 함께 김포M센터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다. 김포M센터에서는 캄보디아 형제 4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주민 형제들이 기도, 말씀봉독, 통역 등 여러 가지 섬김을 직접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을왕리에 도착했다. 미리 와 있던 사랑다락방 식구들이 팔각정에서 시원한 수박과 맛있는 핫도그 등 간식을 준비해서 형제들을 맞이했다.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



동작공동체 성도들과 캄보디아 이주민 형제들이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교제시간을 가졌다.

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비록 언어는 잘 통하지 않고, 서로의 문화가 달랐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이주민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세워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손수 보내주시

는 손님들을 품어야 한다. 그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생명의 말씀과 예배가 잘 심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 그들에 의해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루 동안의 아웃리치를 통해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주민 형제들의 예배에 참석해서 그들과 교제하며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캄보디아 이주민 형제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번 아웃리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들과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결코 아니다. 농사로 이야기 하자면 벼농사를 위한 모내기가 끝난 것이다. 이제는 심어 놓은 모들이 잘 자라도록 게으르지 않은 농부가 되어야 한다. 만약 심어 놓은 모에 물을 주지 않고 관리도 게을리하는 농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잘 하였다 충성된 종아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에게 캄보디아라는 귀한 달란트가 맡겨졌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내년까지 땅에 파묻고 썩 썩 숨겨둘 것인지, 아니면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누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내년 아웃리치 때는 더욱 크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임채열 성도
(동작공동체)

가정사역공동체 인도네시아

삶의 단비와 같았던 시간

가정사역공동체는 인도네시아 람퐁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웃리치를 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아내의 지속적인 권유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막상 아웃리치 현장에 가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은혜와 기쁨이 컸다. 이번 아웃리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었다. 이번 아웃리치 역시 5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어린 자녀들이 함께 했다. 나 역시 7살 자녀와 동반했다. 아이들 때문에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혹여나 사역지에 폐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됐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는 의료팀과 함께 하는 아웃리치였다. 우리는 의료팀을 돕기도 하고, 현지인들을 섬기는 사역도 했다. 현지인들에게 선보일 위생도 열심히 준비했다. 그 위생을 위해 모든 팀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습에 매진했다. 춤하고 거리가 먼 내가 이 사역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됐다. 모두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팀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 틈틈이 연습에 전념했다. 아웃리치에 가져가야 할 의약품 양이 꽤 많아 각 가정의 수하물로 나눠서 가져가야 했다. 그래서 팀원 모두가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리고 아웃리치를 위한 파송예배도 드렸다.

드디어 인도네시아를 향해 비행기가 하늘



가정사역공동체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 가정을 방문해 선물도 전달하고, 기도도 해줬다.

높이 이륙했다.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고 선교사님들이 마중 나오셨다. 그분들이 걸어온 사역의 발자취를 들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카르타에서 1박 하고 람퐁을 향해 다시 비행기를 탔다. 람퐁에 도착하자 ‘위즈마카시’라는 곳에 갔다.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현지 교단이 함께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그곳의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

다. 청소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순수했다.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곳의 청소년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온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의료사역과 주민사역을 위해 아침 일찍 버스로 이동해서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땀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의료팀은 진료장으로 이동했다. 주민사역팀은 단체게임, 풍선아트, 즉석사진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 교제했다. 그 땀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간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밝게 지내주고, 주민들과 사진도 찍고, 풍선 만드는 것도 도와주었다. 아이들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려한 나의 예상이 완전 빗나갔다. 오히려 아이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밝아지고, 현지인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지 않았나 싶다. 그 다음날은 버스로 4시간을 이동해서 사역했다. 마지막 날에는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검진해주는 홈케어사역을 도왔다. 현지 병원 직원들과 동행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선물도 전달했다.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무료한 일상에 젖어 헛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삶의 단비와 같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번 인도네시아 람퐁으로 초청하신 뜻이 아닐까 싶다.



김만호 집사
(가정사역공동체)

새진도교회 아웃리치팀 전남 진도

“거대한 성령의 태풍이 불어왔다”

“오늘 새진도교회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거대한 성령의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새진도교회 목사님이 주일예배에서 하신 말씀이다. 새진도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안양의 한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았다. 매년 여름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진도를 찾아와서 성경학교와 의료봉사를 섬겨줬다. 그런데 작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새진도교회는 크게 낙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준비한 아웃리치 소식을 듣고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전남 진도 아웃리치는 새진도교회의 한 권사님의 부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권사님께서 “진도에 있는 아이들이랑 그냥 며칠 놀아주면 된다”고 하시며 “여기 아이들은 사람이 고픈 아이들이니까 옆에 있어주고 관심만 가져주면 된다”고 하셨다. 나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새진도교회 아이들이 10명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신나게 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시골 출신이라 시골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그만둔지 한참이었지만 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새진도교회 목사님이 주변 교회에 소문을 내셨고, 너도나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5개 교회 아이들까지 참여하게 됐다. 결국 5세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 30여



새진도교회 아웃리치팀이 전남 진도 새진도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명이 참가하는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다. 부담이 되었지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캠프 교사강습회에 참석했다. 순식구들을 비롯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진도 봉사를 같이 가자고 했다. 사람들이 모여면서 시골 교회 여름성경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공동체 권사님과 함께 지인들을 동원해 여름성경학교, 전도팀, 장

수사진, 의료봉사 등을 계획하고 봉사팀을 꾸리게 되었다. 물론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그 정도로 꼭 필요한 인원들로 팀이 구성되었다.

답사와 준비 과정에서 새진도교회 아이들 80%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마저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서 우리는 성경 지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보다는 그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도도 했다.

여름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진도 8개 동네 회관을 쉬지 않고 돌면서 전도도 했다. 40여 명의 어르신들께 화장을 해드리고 장수사진도 찍어드렸다.

감상선과 복부초음파, 테이핑을 이용한 물리치료, 수액주사, 건강 진단과 약 처방으로 나누어진 의료봉사는 토요일 오후 5시간 동안 진행됐다. 60여 명의 동네 분들이 오셔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새진도교회에서도 12년 동안 의료봉사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던 봉사였지만 새진도교회와 주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아웃리치 팀원들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고백했다. 이번 진도 아웃리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놀라운 시간이었다. 온누리교회에 있는 공동체나 다락방이 새진도교회와 연결되어 지속적인 봉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문의: 새진도교회 홍정우 목사(010-4618-3927)



박덕순 집사
(서초A공동체)

하나공동체 강원도 고성

DMZ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하나공동체는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둘레길’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우리는 매년 여름이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간다. 당초 국내 아웃리치는 계획이 없었으나 해외 아웃리치와 뜻을 같이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통일의 불씨를 기도로 살리자는 취지에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DMZ(비무장지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나는 고성 아웃리치 팀장으로 섬겨 달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 나는 총무단에게 “아웃리치의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모든 상황과 과정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자”고 부탁하며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떠난 날은 피서의 절정인 8월 첫째 주 주말이었는데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 도착시간이 지연됐다. DMZ 평화둘레길을 안내하는 주최 측으로부터 재촉과 항의전화를 계속 받았다. 여기서 더 늦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소리에 마음이 조금해졌다. 순간 당황하였으나 차는 국도로 우회해서 가까스로 통일전망대에 도착해서 겨우 접수를 마쳤다. 시간은 30분이나 지연됐다. 신원 확인



하나공동체가 강원도 고성 ‘DMZ 평화둘레길’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을 끝내고 차량에 바로 탑승했다. 접수와 신원 확인을 하는 그 몇 분이 내게는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차량에 탑승하고 비무장지역의 마지막 철책선에 다다른 우리는 금강산전망대초소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했다. 한반도가 하루속히 북쪽으로 통일될 수 있

도록 간구했다. 기도를 마치고 안내자로부터 남과 북을 갈라놓은 휴전선 이야기와 북쪽의 초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북쪽에서도 마지막 초소에서 해외여행객들에게 남쪽 지역을 보여준다고 한다. 모든 설명을 듣고 평화전망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안내자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우리가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주최 측과 군이 끝까지 기다려준 것은 거의 유례없는 일이라고 했다. 원래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일정인데 주최 측에서 하나공동체를 같은 차량을 이용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첫째 날 저녁에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팀 빌딩과 찬양,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공동체가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합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은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겔 37:17).

마지막 폐회예배에서는 김영창 목사님(하나공동체 담당)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에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공동체 일원인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또한 짧은 시간

이지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북쪽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안전하게 63명이 계 획된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임삼빈 성도
(하나공동체)

CGNTV ‘2019 서울 웹페스트 영화제’ 수상

‘KNOCK 미니콤 시리즈’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 부문



CGNTV가 2019 서울 웹페스트 영화제에서 기록콘텐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CGNTV의 유튜브 콘텐츠 브랜드 ‘KNOCK 미니콤 시리즈’가 지난달 23일(금) 열린 ‘2019 서울 웹페스트 영화제’에서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 부문을 수상했다. KNOCK 미니콤 시리즈는 기독교 콘텐츠를 담은 짧은 미니시트콤이다. 친구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담고 있다. KNOCK 미니콤 시리즈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황지수 PD(연출담당)는 “앞으로도 넌크리스천도 함께 볼 수 있는 매력 있는 공감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CGNTV는 지역 섬김의 일

환으로 온누리교회 미술선교팀 아트비전과 함께 서빙고 주민센터에서 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아트클로로 만나는 생활 아트 클래스에는 2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스페인어예배 1주년 감사예배

오늘 오후 2시 도곡교육관 온유홀

스페인어예배 창립 1주년 기념예배를 오늘(1일) 오후 2시 도곡교육관 2층 온유홀에서 드린다. 기념예배는 성찬식, 특송, 말씀, 축하 연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스티브 차 목사(영어예배)가 메시지를 전한다. 식탁교제도 준비되어 있다. 스페인어 예배는 지난해 9월 2일

신설됐다. 중남미 성도 한국 성도들 약 25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주홍 장로(스페인어예배 담당)는 “1년 동안 스페인어예배를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의: 010-2049-4681

관계기술훈련 참가자 모집

9월 25일~12월 18일 서빙고 한동홀

‘2019 관계기술훈련 트랙1 기쁨의 정체성’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기쁨의 정체성’에서는 기쁨과 평강을 확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삶

속에서 건강한 애착을 회복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온누리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10-9276-9220, 010-5191-418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통일 아카데미 2기, 19일부터 개강

북한과 통일을 바로 알아가는 통일 아카데미 2기가 개강한다. 통일 아카데미 2기는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에서 9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통일 아카데미 2기에서는 통일 및 북한 전문가들이 총 출동한다. 참가비는 8만 원. 문의: 010-9064-6080

NGO 더멋진세상, ‘러브브릿지교회’ 준공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르완다 가후도마일에 ‘러브브릿지교회’를 준공했다. 지난달 8월 16일 열린 러브브릿지교회 준공식에는 김광동 대표(NGO더멋진세상), 김웅봉 대사(주 르완다), 마을 주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러브브릿지 교회는 예배처소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차세대 놀이터로 활용된다.

생명과 환경팀 이색수련회 ‘Green MT’

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팀이 지난 8월 15일과 16일 1박2일 동안 경기도 양주에서 이색수련회를 열었다. 친환경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열린 ‘Green MT’다. Green MT 수련회에서 생명과 환경팀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여과 방식으로 정수되는 셀프케어 정수기를 사용했다. 텀블러 이용과 쌀뜨물 세안도 실천했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영문판 출간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영문판이 지난 7월 출간됐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은 세대 간 신앙전수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부모(혹은 교사)와 아이가 일대일로 만나서 성경을 기초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기초를 세우도록 돕는 과정이다. 2017년 2월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한글판 교재가 출간되었는데 1만부나 팔렸을 정도로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교재이다.

안산M센터 캄보디아예배 한국어 교사 모집

안산M센터 캄보디아예배에서 한국어교실 봉사자(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봉사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다. 봉사 장소는 온누리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다. 문의: 010-8901-8958

국제부 양육 프로그램(2019년 하반기)

부서 및 언어	프로그램	일시	학습장소	강사
영어예배 (영어)	큐티베이직/나눔방 (Quiet Time Basics + Sharing Group)	10월 6일~11월 24일 매주 주일 9:00~10:00 10월 6일~11월 24일 매주 주일 14:00~15:00	도곡2교육관 중대부고 6층 서빙고 선교관 302호	목회자 목회자
	WOW 여성예배 성경공부: 예배소서	9월 4일~11월 27일 매주 수 10:00~12:00	서빙고 믿음홀	차제이미 목사
	WOW 직장 여성을 위한 성경공부: 예배소서	9월 4일~11월 27일 매주 수 19:00~21:00	서빙고 영어예배 사무실	여성사역 목회자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0월 10일~12월 5일 매주 목 19:00~21:00	서빙고 영어예배 사무실	스티브차 목사
	Inductive Bible Study Methods 귀납적성경공부방법		서빙고 홍보관 엘리홀	다니엘박 목사
	Old Testament Survey 성경통독 구약	10월 5일~11월 30일 매주 토 14:00~16:00	서빙고 아론홀	웨슬리 맥클러 목사
중국어예배 (중국어)	한글학교	9월 21일~11월 30일 매주 토 11:00~13:10	서빙고 드림홀	한글강좌 선생님들
	로마서반	9월 7일~12월 19일 매주 토 13:30~15:30	목사님 사무실	송우형 전도사
	성경맥잡기	9월 7일~12월 19일 매주 토 13:30~15:30	중국어예배 사무실다락방	오명도 전도사
일본어예배 (일본어)	마가복음	9월 7일~12월 19일 매주 토 14:00~16:00	아론홀	주하세 전도사
	글로벌 프렌즈(유학생사역)	2019년 하반기 매주 화 18:00~22:00	신촌 창천교회 모임방	매주 바뀜
	한글강좌(이촌동가정주부대상)	2019년 하반기 매주 금 10:00~12:30	401호, 402호, 403호 상급반, 중급반, 고급반	한글강좌 선생님들
프랑스어 예배 (불어)	일어예배대청(성경공부)	2019년 하반기 매주일 15:00~18:00	신동아 믿음홀	김삼인 전도사
	창세기	2019년 하반기 매주일 16:00	양재 강익동 204호	제라르 티네베 목사
	누가복음	2019년 하반기 매주 목 19:30	합정사택	
	요한일서	2019년 하반기 매주 목 13:00	합정사택	
스페인어 예배 (스페인어)	일대일제자양육프로그램	2019년 하반기 매주일 11:50~13:00	도곡교육관(온유홀)	네이라 목사
	스페인어 배우기	2019년 하반기 매주일 16:00~17:00	도곡교육관(온유홀)	박혜준 성도

*영어 양육 프로그램 등록은 <http://www.onnurienglish.org>에서 수업 시작일 2주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원서 구입으로 인해 신청과 입금확인 시 등록 완료됩니다.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어예배 성도를 우선으로 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6969	남경옥	부천 소망	1136995	차형근	하늘	1137021	김영수	서산온누리	1137058	송바울	한티공동체
1136970	심동섭	강남B	1136996	김민영	서산온누리	1137022	이항기	여호수아	1137059	박영금	강동 말씀
1136971	하선옥	수원 남누리	1136997	류상준	하늘	1137023	김시혜	여호수아	1137060	남현숙	신용산
1136972	박수현	강동 믿음	1136998	이신영	하늘	1137024	권나은	여호수아	1137061	낸 다	인천 동누리
1136973	김정미	분당B	1136999	윤희랑	동작	1137025	현하나	여호수아	1137062	장철일	강동 말씀
1136974	박규리	부천 희락	1137000	전창민	인천 서누리	1137026	박은모	여호수아	1137063	김영일	강동 말씀
1136975	조정국	서초A	1137001	신혜정	양재	1137027	최태원	여호수아	1137064	황수빈	인천 서누리
1136976	박경택	SNS	1137002	노형재	성북	1137028	한혜조	Point5	1137065	양현진	강동 말씀
1136977	최종만	SNS	1137003	김윤정	노원	1137029	김창국	부천 희락	1137066	최옥경	송파A
1136978	이상현	SNS	1137004	최아라	평택	1137030	류필재	인천 서누리	1137067	최진하	Bridge33+
1136979	박현진	SNS	1137005	심재훈	부천 희락	1137031	문혜윤	인천 서누리	1137068	김예지	부천 희락
1136980	주소영	SNS	1137006	박연미	인천 동누리	1137032	이정림	중종로	1137069	최소영	중종로
1136981	박진혁	SNS	1137007	김연석	평택	1137033	정지혜	성북	1137070	윤현정	대전 남누리
1136982	권민희	SNS	1137008	유현상	인천 동누리	1137034	유해숙	김포	1137071	정화경	친새울
1136983	박창우	SNS	1137009	조승윤	대전 드라마스	1137035	김영은	강남A	1137072	정민영	CH630
1136984	염예은	SNS	1137010	황현선	인천 동누리	1137036	김성우	하북	1137073	최진하	CH630
1136985	최하늘	SNS	1137011	남정숙	강남B	1137037	이명현	하북	1137074	김용무	CH630
1136986	김도형	SNS	1137012	이병재	여호수아	1137038	한지연	수원 남누리	1137075	김다혜	CH630
1136987	한예은	SNS	1137013	임지선	여호수아	1137039	허지현	W	1137076	윤정	CH630
1136988	안일민	SNS	1137014	김희연	여호수아	1137040	이빛여울	W	1137077	박태산	CH630
1136989	김보리	SNS	1137015	박지연	여호수아	1137041	김미소	W	1137078	김아드리엘	CH630
1136990	이혜옥	경기A	1137016	전수라	여호수아	1137042	박영미	송파A	1137079	박규철	CH630
1136991	서지윤	인천 동누리	1137017	김고운	인천 서누리	1137043	최원희	대전 동누리	1137080	김성민	CH630
1136992	송민혁	하북	1137018	강주현	여호수아	1137044	박미서	CH630	1137081	오경애	강남C
1136993	함진아	서초A	1137019	이진일	여호수아	1137045	김희진	CH630			
1136994	이현지	하늘	1137020	최윤정	양재	1137046	장선민	CH630			

장로칼럼

권사칼럼

듣기만 하여도 설레는 ‘예수제자학교(JDS)’

조진호 장로
(서초C공동체)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수필 ‘청춘예찬’의 첫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예수제자학교!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15년 회사생활을 마치고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던 2005년 나는 예수제자학교 양재 저녁반 1기를 수강했다. 2년의 간사 시절을 포함한 3년 동안 아내와 함께 예수제자학교 훈련을 받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여러 강의를 듣고 학생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QQ(Quakers Question: 영국 퀘이커 교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자기소개 프로그램) 시간’이다. 훈련 초기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가장 행복했던 경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 장래의 비전 등을 말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를 소개하는 시간은 긴장되고 힘들기도 했지만 돌아켜 보니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예수제자학교 훈련의 백미는 여름 아웃리치였다. 팀을 구성하고 직임을 결정한 다음 장소와 일정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팀원들이 기도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합하여 아웃리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갔다. 마치 여러 개의 퍼즐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전체 그림을 완

성해 가는 과정과 같았다. 기도로 그려던 장소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놀라움과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아웃리치 기간 중에 무엇을 먹었지, 어디에서 잠을 잘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나아갔다. 모든 일정에서 만났던 뜻밖의 손길들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응답이었다. 팀원들 간 의견대립, 성격차이로 갈등이 있을 때도 함께 기도하며 강의 중에 배운 권리포기를 떠올렸다. 그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성숙한 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예수제자학교 훈련은 삶을 돌아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생각하게 만든 아주 좋은 기회였다. 비록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으나 내 인생의 전반전 삶은 육적인 기독교인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삶이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었다. 그러던 중에 받게 된 예수제자학교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훈련을 받은 이후 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기 시작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도 서빙고, 양재, 수원 캠퍼스에서 총 250여 명의 학생들이 예수제자학교 훈련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2일에는 학생들과 간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여름 아웃리치 경험을 나누고, 예수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행사도 열었다. 예수제자학교 훈련이 많은 분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기도한다.

박화숙 권사
(분당B공동체)

이스라엘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보통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하실 곳으로 알고 있다. 즉,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보다

는 성경 속에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는 딸과 이스라엘에 다녀왔다. 도착하자마자 통곡의 벽(Western Wall)으로 갔다. 그날은 마침 오순절(샤브웃) 절기라서 수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철야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토라(모세오경)를 들고 뛰며 춤추고 정말 기뻐하고 있었다.

다음날에는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를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바이 돌로사’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갔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곳에 위치한 현재는 황금돔이 있는 성전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들어오실 동문을 봤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장소인 감람산 정상에서 수많은 돌무더기와 예루살렘 전경을 보면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며 통곡의 벽으로 기도하러 가는 수많은 정통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보게 되었다.

팔레스타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단적인 예로 교통수단인 버스를 예루살렘에서 타보면 바로 알게 된다. 아랍 공영버스에는 유대인들이 절대 타지 않는다. 그러나 유대인 공영버스에는 가끔 아랍인들이

탑승한다. 역사적으로 생긴 서로 간의 깊은 속앓이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복잡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고 성이 무너진 날에 유대인들이 텔여리고(Tel-Jericho)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많은 경찰들과 군인들의 대동 하에 팔레스타인 지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여러고가 팔레스타인 지구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관계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의미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팔레스타인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들이 종종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골란고원까지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Believer(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못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 정착해 있지만 메시아니 유대인이 된 것이 탄로가 나서 시민권을 빼앗기고 고국을 등지고 다시 떠나야 하는 유대인들도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한다. 유대인에게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의 칼이었고,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는 ‘홀로코스트’를 당하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회복, 예수를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안전과 그들의 사회적인 기회의 박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신앙에세이

한마디 위로의 말

김정숙 목사
(병원사역)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행 6:10).

지난 사역의 날들을 돌아보면 나 아닌 나로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소신을 다해 당당히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여섯 살부터 교회 유치부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두 언니의 믿음이 덕분이었다. 두 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무척이나 핍박하셨던 부모님의 박해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충만함이 어려서부터 내면에서 용솟음쳐 올랐기 때문이다. 두 언니는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 농사일을

남자가 해야 할 몫까지 찾아서 주중에 다 해치웠다. 들에서 일할 때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라는 가사를 읊조리며 둘째 언니는 알토로, 셋째 언니는 소프라노로 화음을 맞춰 찬양을 부르면서 일을 했다. 한 장로님께서 지나가다 그 찬양을 들으시고는 감동을 받으셔서 “쫄쫄 저 어린 것들이...”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다.

형부가 신학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 무렵 나 또한 언니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경야독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청계산을 비롯해서 경기 일대 기도원을 많이 돌아다녔고, 늘 누군가에 의해 밤 기도를 다녔다. 돌아켜보면 그 좁고 힘든 산을 올라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곤 했지만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눈을 반짝이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나 나를 빚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 우리 자매를 많이 이해해주시고 길에서 만나면 언제나 어린 나를 세워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씩 기도해 주시던 주동화 장로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언니와 장로님 댁을 찾아갔다. 당시에는 병원에 갈 엄두도 없었고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통례였다. 안방에 평안히 누워 계신 장로님 곁에 가서 훌쩍이며 울고 있었다. 혼수 상태로 일주일째 대화가 끊겼다면 권사님께서 장로님 귀에 대고 조용히 “장로님 정숙이가 왔어요”라고 속삭이셨다. 그러자 장로님은 두 눈을 번쩍 뜨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정숙아 왜 우니 요단강이 보인다. 예수님이 나에게 손짓 하신다” 하시더니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지금도 이 한마디가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이 흘러 삼성서울병원 선교를 시작할 무렵의 일이다. 여러 모양의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한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놓여 있을까?”를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잠시 삼성병원 기

독교실을 방문하셨다. 당시 어려움을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었는데 하 목사님께서 내 상태를 금세 알아채시고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조용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김정숙 전도사님이 빛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를 지금까지 간직하며 삼성병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나의 사역 여정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드린다. 이단을 물리치고, 복음을 지켰고, 병상의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죽음 앞에 계신 말기 환우들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요단강이 보이도록 돕는 사역에 쓰임 받고 있음을 감사드린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참된 회개(1)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말씀에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고 말할 필요도 없는 이치입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악인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만한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된 회개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육신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며 괴로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신약의 1/3을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저작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이면 비교적 많은 사역을 이룬 원숙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에게 끔찍한 악이 있음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악은 우리가 한번 회개한다고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회개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악과 다시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한 영혼으로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악이 우리를 사로잡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악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초신자 때 경험하는 것이고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더 어려워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자신을 소개할 때는 사도됨을 강조했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후반기로 갈수록 사도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자신을 지극히 낮추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가장 후반기에 쓴 서신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딤후 1:15). 예전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자기 안에 늘 같이 존재하는 악의 무서운 실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내 안에 온통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더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참된 회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철저히 회개하면 산다

둘째, 악인이 거짓 없이 철저히 회개하면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 악인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자유 의지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죽음과 멸망 피하기를

셋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여 죽음과 멸망을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악인이 회개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이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노력이고, 집 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마를 찾는 여인의 노력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찾고 기다리고 일하며 악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음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악이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올 때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매일 묵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 눈을 뜰 때, 잠자리에 들 때, 길을 걸을 때, “돌이키고 돌이키라.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악을 행하기를 즐겨 했던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빠져있던 악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드러내시는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실재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에 살고자 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오늘은 스페인어예배 창립 1주년

세 가지 비전



김주호 장로
(노원공동체)

오늘(9월 1일)은 스페인어예배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다. 스페인어예배는 온누리교회 국제부 소속으로 지난해 신설되었다. ‘Discipulus(제자)-마 28:19’ 말씀을 주제로 페루 출신 ‘네이라 크리스티안’ 목사님이 담당목사로 섬기고 계신다. 적은 성도들로 시작된 예배공동체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7)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쁜 마음으로 작은 섬김을 이어 오고 있다.

스페인어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4억 3,7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전 세

계 24개국 공식 언어로, 지구상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다. 브라질을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안 국가에서 공식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 중에는 지역에 따라 가톨릭에 접목된 토속신앙을 가진 곳이 많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향한 복음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현재 스페인어권 나라에서는 북미주에서 파송된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매우 적다. 따라서 한국 교회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남미 국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스페인어예배는 서로 국가는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므로 타국(한국)에

서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생활을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열방 민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 스페인어예배에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교제가 있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영적 훈련 장소로 쓰임 받고 있다.

스페인어예배에는 세 가지 비전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가정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더 많은 개인 및 단체의 복음화를 위해 ‘찾아가는 예배’가 되어 서로 교제하며, 삶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중국과 같은 이웃나라에서 더 많은 제자를 양육하고 더 많은 예배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네이라 목사님이 스페인어예배를 이끌어가는 목회방향이자 비전이

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단으로부터 구별된 말씀에 의거하여 복음 사역자로 세워질 것을 믿는다.

스페인어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예배당에는 통역기가 비치되어 있어 통역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실’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무료로 1시간 씩 운영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스페인어예배에 헌신할 귀한 동역자들을 찾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어예배를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페인어예배를 위한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와 물질양면으로 협력해주시는 성도님들과 국제부예배 담당 스태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서울시 이문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셀 7층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현로 8			
해외 온누리교회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통화온누리 엄정선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Iamboree.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8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 일본 • 동경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오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태만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 营西路 江大物业 (内地大 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 SHI KAIFAG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참가하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지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감미향 강일하 강지영 권영환
권용갑 김해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상수 김승용 김성웅
김소지 김승수 김승안 김승훈
김영배 김영장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진아 김재식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의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동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현 박성은A
박성은B 박주필 박성현 박세용
박진중 박철용 박태영 박형준
배병삼 백인규 변대선 서 현
손정훈 송서근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신대바 안광국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유상 원유영 원정배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윤현구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경원 임용성 임신인 전태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영민
조동욱 조병홍 조바람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성리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철연 후쿠자와 마키토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재승 안사무엘 이우람

최대용 최성규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박이은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세현 김종영

김창성 김해경 네트라 박세호

한태환 마주봉 민현식 배재필

박세마 서수민 생애배 안희진

이진이 유승민 유진아 윤치연

인산아 제인방 최일광

코스타

◆전도사(파트)

강성호 고주빈 권은영 권영현

김경민 김두일 김세환 김은하

김승겸 김승우 김태두 김영신

김은혜 김유민 김지현 김종국

김정미 김성호 김지진 김준규

김진성 김태영 김대환 김태환

김태희 김한국 김해중 김해영

김희재 김대규 민희준 박시현

박영규 박은빛 박이호 박지수

박현식 박세미 벌 케 박강식

배병지 백운진 서영철 생수환

송동주 송선애 신현민 신대중

신동욱 신하선 신현아 신광주

양주영 양진희 여지휘 안준현

오명도 오영민 오준현 윤성복

오현석 오승민 윤지자 윤지은

윤수신 윤윤아 이민아 이은희

이명진 이보라 이상관 이상은

이성인 이선영 이상광 이영준

이수홍 이진기 이윤수 이현석

이은정 이진기 임수아 임지성

임정민 임광명 장미숙 장세원

정재원 정영진 정성리 정영진

정재진 정영진

주영삼 최규중 최영준 최현희

한영철 허수환 현신원 황기희

한영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창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식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식

김기호 김남철 김명철 김석인

김사래 김남철 김성열 김성열

김수광 김수영 김 유성 김원규

김영수 김용성 김 유식 김종승

김원규 김종국 김종성 김종성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김지화 김희모 김현철 노재한

강동수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선 강희

9월

CGNTV 가을 개편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V로 만나는 [웰메이드 콘텐츠]



95만 유튜브 유저들이 선택한 <붓소 핸섬>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조셉 붓소의
길거리 전도 프로젝트!

9월 15일(주일) 첫 방송
매주 주일 오전 11시 10분



창조과학 다큐멘터리 시리즈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

대홍수 사건과 공룡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만나는 창조 이야기

9월 7일(토) 첫 방송 / 총 12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방송 *TV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풍성하게 만드는 [10분 콘텐츠]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건강 전도사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홈 트레이닝

9월 2일(월) 첫 방송
월 - 금요일 오전 8시 50분
오후 9시 50분 방송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찬송가에 담긴 신앙의 이야기와
고백을 따라 가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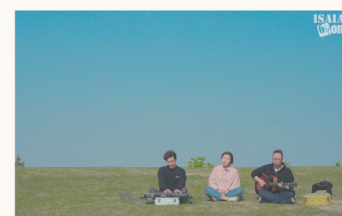
9월 4일(수) 첫 방송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0분 방송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매주 성경 한권, 짧고 간결하게
짚어보는 성경의 핵심

9월 7일(토) 첫 방송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저스트 텐 미닛

찬양, 메시지 등 짧고 복음적인
크리스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누리는 은혜

9월 2일(월) 첫 방송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 40분 방송